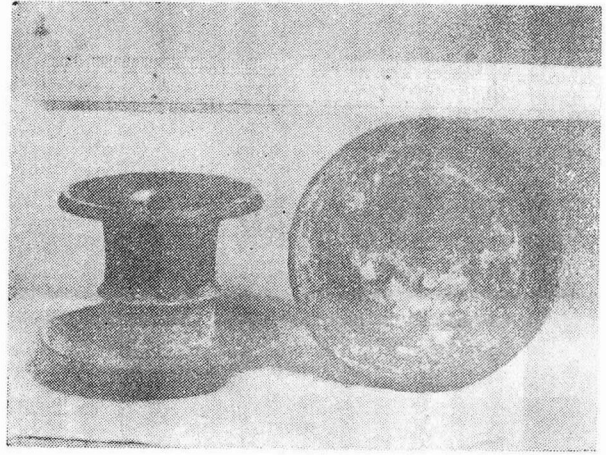


되었다. 舍利等の發見狀況으로 보아 塔을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 石塔에서 또 하나의 注目點으로서는 基壇部의 下臺底石 周圍에 돌림돌을 놓았던 一部の 石材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는 西北隅의 것으로 元來는 四方周圍에 둘러져 있었던 것이 確實하다고 보겠다. 周圍外廓에 碓(高〇・一五尺 幅〇・六尺)이 있어 물이 빠지도록 홈(〇・一尺)이 파져 있으며 部材는 여러 枚로 놓여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塔의 相輪部는 상실되었으며 直徑〇・四五尺 깊이 〇・四五尺의 擦柱孔만이 남아 있었다. 塔身部는 初層屋身等 各 屋蓋石이 모두 一石이며 基壇部의 上臺甲石은 四枚로 되어 있고 上臺中石도 四枚로 되어 있다. 下臺中石은 內部中心에 心礎石(撐柱石)없이 雜石만을 채우고



三五尺 淡黃色)一個 五色구슬類 九個(직徑一分 정도)의 大小)가 發見되었다. 이들은 舍利孔에 安置되었는데 舍利瓶은 圓筒內에 있었고 유리기슬과 同圓形小品은 下盤돌테에 있었는데 이들은 土塵에 汚濁혀 있어서 이 圓形蓋形容器를 덮고 있었다. 유리기슬瓶內에는 卵白色舍利 七粒이 있어 後에 塔再築時에 다시 새로운 容器에 넣어 原位置에 安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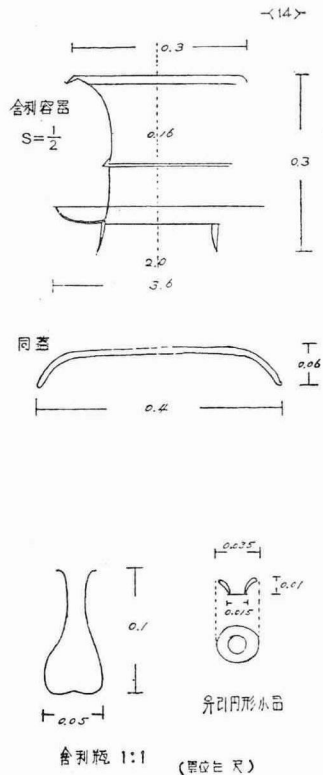
大邱市內에서 桐華寺로 가는 길을 따라 四km쯤 가면 합승중점인 不老洞이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約二km쯤 가면 북쪽이 斷丘로 되어 東西로 달리는 巖山(一名 香山)이 있다. 이 巖山의 북쪽 斷崖에는 우리나라 天然紀念物 第一호인 側栢나무들이 바위틈을 비집고 자라 아래로 처뜨리고 서식하고 있고 그 아래로 맑은 냇물이 감돌아 佳景을 보인다. 이 벼랑의 동쪽 끝의 약간 평평한 곳에 아담한 佛宇가 東向하여 세워졌는데 이것을 觀音庵이라고 한다. 이 庵子는 義相祖師 創建의 古刹이라고 하나 古建物址의 흔적이 전연 없고 現建物은 高宗時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觀音殿안에 石觀音菩薩像 一軀가 있고 建物보다 一段 높은 곳에 小石塔이 있어 注目된다.

一、觀音菩薩像

方形臺座上 東向한 正面立像으로 현재 臺座를 제외한 全身部에 두

八公山 觀音庵

文 明 大



中石을 두르고 있다. 下臺甲石은 五枚로 되어 있으며 下臺中石과 下臺底石이 같이 四枚로 되어 있어 全體의 規模도 크지만 各部材의 돌도 크게 다루었다 하겠다.



더운 종이를 입힌 후 鍍金하여 세부의 조각수법은 볼 수 없고 무릎아래는 木造祭壇이 架構되어 있어 잘 볼 수 없다. 身光은 없고 頭光이 있는데 머리보다 약간 크며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머리

에는 寶冠을 쓰고 있는데 그 下端部는 눈썹 바로 위까지 내려왔고 그 중앙부를 두르면서 一條의 線이 刻出되고 있으며 上半部는 三山冠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三山冠 가운데에 化佛이 있고 좌·우로 꽃무늬가 表示된 듯하나 이 또한 입힌 종이 때문에 잘 구별할 수 없다. 이마의 表示는 거의 없고 눈은 가늘고 길게 켜져 있으며 입술아래는 반달형으로 음복하게 들어 갔고 귀는 細長한데 그 한 가운데로 寶冠에서 내려온 一條의 線이 둘러 있다. 양볼의 살은 두둑하지는 않으나 얼굴은 넓적하여 평판적이면서도 비만한 모습이다. 兩 귀뿌리에서 흘러내린 영락은 두가닥씩 양어깨로 흘러내렸고 各 한가닥은 가슴으로 모아 둥근 꽃무늬를 그린 후 다시 북부로 내려오고 있다. ① 오른 손은 가슴에 얹어 內掌하였고 (軍威三尊窟의 觀音像은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음) 왼손은 내리 寶瓶(?)을 잡고 있다. 허리는 한 가닥의 陰刻線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아래에서 부터 중앙부로 내려가면서 한가닥의 線이 음각되어 두 다리를 나타내고 있어서 아랫배의 표시가 없는 이상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오른쪽 팔꿈치와 왼손에서부터 大腿部 사이로 U字形的의 影라키 浮彫되어 있는데 각기 그 가운데 둥근 꽃모양을 그린 후 다시 아래로 흘러내렸다. 衣紋의 표시는 현재 볼 수 없으나 발 가까이 종이를 벗겨 보니 음각선들이 많이 새겨있어 衣文의 표시를 추측케 한다.

座臺는 方形으로 上部에 보살의 발을 표시하였으리라 생각되는 厚二

cm 徑七cm의 원형이 浮彫되어 있다. 正面과 兩側面에 蛟龍(?)이라 생 각되는 動物像이 조각되었고 그 등에는 花文(?)이 새겨져 있는 듯 하나 祭壇 때문에 확실한 무늬이름을 알 수 없어 유감이다. 佛像臺座에 이와 같은 文樣은 잘 볼 수 없는 것으로 특히 注目된다. 입힌 종이와 祭壇 때문에 확실한 연대는 推定할 수 없으나 현재로는 麗代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實測值 全高一六三·五cm, 身高一四〇·五cm 頭高三〇cm 頭光高三六cm 幅四〇cm 臺座高一三三cm 二、石塔

小形の 三層石塔으로 남떨어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데 현재 二層屋身은 없어졌고 三層屋身은 三層屋蓋石위에 얹혀 있으며 全面에 靑苔가 덮혀 있다.

臺石은 高七cm의 一板石으로 간략히 표시되었으며 中石에는 隅石의 表示가 있고 各面에 蓮花座上의 化佛이 浮彫되어 있는데 風化로 인하여 잘 구별할 수 없으나 蓮花上에 結跏趺坐하여 오른손은 가슴에 얹고 왼손은 배에 대고 있으며 圓形頭光도 보인다. 佛像 좌·우로 花枝가 엮꽃으로 부터 머리까지 올라갔다. 第一塔身에는 一段의 물딩받침이 있으며 第二塔身은 缺失되었고 二層屋蓋石에는 받침표시가 없다. 第三塔身에는 四面에 현재 희미한 무늬가 조각되었는데 佛像인 듯 하며 三層塔身에는 一段의 물딩받침이 있다. 屋蓋石의 落水面은 완만하고 各層의 減縮率은 그리 크지 않다. 各層에 省略의 手法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코 줄잡이 아닌 아담한 塔으로 山地小石塔의 좋은 例라고 생각되며 年代는 비록 落水面의 정사가 완만하다 할지라도 全體의 수법으로 보아 麗代作이라 고 생각된다.

實測值: 臺石高七cm 一邊長六二cm 中石高四〇cm 一邊長五一·五cm

塔身部 屋蓋石

上基甲石: 高七cm 一層: 高三三·二cm 幅三七·五cm 幅五三·三cm

一邊長六一·二cm 二層: 高三三·二cm 幅四二·五cm

三層: 高三一·五cm 幅二六·六cm 幅四一·三cm

註 ① 菩薩像에 흔히 표시된 例로 考古美術 第四卷 第五號 秦弘燮先生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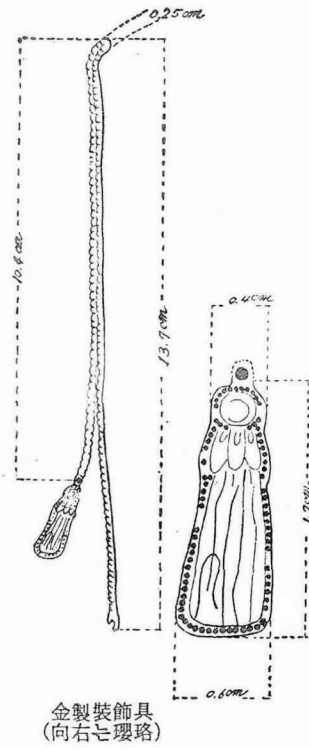
이 소개한 菩薩像의 무늬와 유사한 듯하다.  
 朝鮮古蹟圖譜九의 P, 一二五에 있는 陽刻小童探蓮文護符容器에  
 조각된 動物像과 매우 비슷하다.

百濟 金剛寺址出土 金製 裝飾具

金 永 培

扶餘郡 恩山面 琴谷里에 所在한 金剛寺址 發掘時에 그 部落에 居住하  
 는 趙成一氏가 農地耕作中 發見하여 保管中에 있는 것을 國立博物館 尹  
 武炳 學藝官과 金正基 考古課長이 着眼하여 一九六六年 四月 十八日에  
 扶餘博物館에 收藏한 것으로서 百濟時代 金工品의 纖細한 鎳리그리細工  
 의 手法을 보여 주는 遺品이므로 簡單히 적어 두기로 한다.

이 裝飾具는 純金을 細棒形으로 두드려 느린 뒤에 中間에 끝을 내서  
 雙陵으로 區分을 짓고 陵上에는 連珠文을 押印으로 連續시키었는데 한  
 쪽이 길고 또한 쪽이若干 짧게 되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金片에다가  
 粒子和 細線을 부치어서 瓔珞片模樣을 만들어서 하나씩 부치었는데 現  
 在는 긴 部分의 것은 缺失되고 짧은 끝에 달리었던 것만이 남아 있다.  
 (彫鏤文樣은 圖面參照) 用途에 있어서 女人의 頭飾으로 使用되었던



第七卷 第五號 通卷 七十號

釵의 一種이 아닌가 하는 見解가 있는데 裝身具의 性格을 가진 것은 事  
 實이다. 그러나 長時間 考察하는 동안에 拙見이나 臆說을 가진 것을 보  
 면 頭飾品으로 考定을 한다면 棒端에 달려있는 瓔珞片이 서로 고리를 만  
 들어서 달아가고 搖飾의 風致를 내서 달랑달랑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  
 인데 瓔珞片 頭部와 棒端에 各其 구멍을 뚫어가지고 못을 박아 양쪽에  
 서 맞조짐을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點과 棒身에는 連珠  
 文을 押印하였기 때문에 머리에 꽂을려면 머리털에 걸리어서 不便한 點  
 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或是 菩薩像에 附着되었던 裝飾具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雙陵線으로 區分하여 連珠文을 彫  
 鏤한 것은 衣帶雙線을 表現하고 끝은 두 갈래로 벌리어서 瓔珞片같은 것  
 을 달아 놓은 것은 衣帶끝에 다른 「수술」을 構想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拙見이요 斷定은 避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 깊  
 은 考察이 있어야 할 것이다. (實測値는 圖面參照)

考古美術 뉴스

◎ 王宮里 五層塔基發掘

冬期로 中斷되었던 이 工事は 基壇新造石材가 四月十日 現場到着되므로써 再  
 開되었다. (이 石材는 彌勒山에서 採取) 治材進行과 더불어 二十一日부터는 塔  
 基北方의 發掘調査가 着手되었는 바 二十二日에는 數石列과 夫瓦一列(東西)이  
 發見되었다. (調査員은 黃壽永 洪思俊 申榮勳)

◎ 益山望城面에서 百濟大甕發見

四月一日 全北 益山郡 望城面 長善里(新里)山二九〇에서 宋在沃(農26)에 의  
 하여 發見되었는데 地下二尺에 南北으로 누어 있었으며 內底에는 圓底壺片이 있  
 었을 뿐이다. 高三尺 肩部徑二尺 口徑一·五九尺 淡黑色으로 無紋이며 底面  
 은 圓尖. 此外에 格子文大壺一 無紋大壺가 同時發見되었으나 大破되었으며 百  
 濟平瓦片도 附近에서 收拾되었다. 이에 대하여 四月十九日 洪思俊 黃壽永 兩  
 氏의 現場調査가 있었다.